

전남 2040년 열명 중 넷은 '노인'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지표로 본 호남

광주·전남·전북 2017년부터 인구 감소 65세 이상 3명 중 1명 '초고령사회' 진입

2040년 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의 고령 인구는 40%에 달해 전국 최고치로 예상된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14 사회지표'로 본 호남·제주 지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해 25년 뒤에는 497만명 선까지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또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이 지역 인구가 3분의 1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호남 지역의 인구는 507만1000명으로 전국 인구의 10.1%를 차지했다. 이 지역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 506만7000명, 2040년 497만5000명까지 줄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성

장률도 지난해 -0.03%에서 2040년에는 -0.32%로 감소세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국의 인구성장률은 2014년 0.41%에서 성장폭이 점차 감소해 2040년에는 -0.39%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역은 심각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는 86만8000명으로 이 지역 인구의 17.1%를 차지했지만 2040년에는 180만5000명으로 36.3%까지 증가한다. 현재도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의 경우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41.1%에 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지난해 호남 지역의 혼인건수는 2만6781건으로 2004년(2만7798건)에 비해 3.7%감소했으며 이혼건수는 1만1277건으로 2004년(1만3559건)에 비해 16.8% 감소

했다. 2014년 남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광주 32.5세, 전남·북은 32.3세로 10년 전에 비해 1.9~2.2세 늦춰졌으며, 여자는 초혼 평균연령이 29세로 10년전보다 2.5~2.8세 늦어졌다.

지난해 호남 지역 고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광주 78.7%, 전북 75.6%, 전남 74.9%로 전국 평균 70.9% 보다 높았다. 또 취업률은 광주 35.9%, 전북 36.5%, 전남 64.2%로 전년 대비 전남은 13.8% 늘었다. 광주와 전북은 각각 5.1%, 4.2% 감소했다. 고용률은 광주 58.6%, 전북 57.7%, 전남 61%로 나타났다.

사회 안전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응답이 광주 55.9%, 전북 54.1%, 전남 49.2%로 '안전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7863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판'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는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office/hnr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잠 못 드는 밤 광주시청으로 문화피서 가자

7~16일 영화·캠핑·공연



광주시청사가 무더운 한여름 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오는 7일부터 16일 까지 시청사 1층 '시민숲'과 잔디광장 등 문화광장에서 '열대야 친구아 놀러가자'를 주제로 영화 상영을 비롯한 캠핑장 운영, 콘서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어린이 자전거 대여 등의 행사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시청사 내 안전체험관 2층 무등홀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 모두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수·토요일 오후 2시의 오후 8시 하루 두 차례 상영된다.

시는 또 1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자전거를 대여해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청사 광장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열대야 친구아 놀러가자' 행사기간동안에는 시청 앞 잔디광장도 캠핑장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시 회계과(062-613-3194)로 참가 신청을 하면 텐트를 대여하거나 직접 가져와 이용할 수 있다. 선착순 하루 10개 동이며 이용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잔디광장에서는 매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름노래, 퓨전 국악, 클래식 음악, 가족이 함께하는 노래 등 다양한 공연 행사도 열린다.

시도수 광주시 회계과장은 "시민들이 시청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열대야를 피하고 재충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1945년 8월 15일 도쿄 주민들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는 일본왕 히로히토의 라디오 연설을 무릎꿇고 듣고 있다.

'히로히토 항복 선언' 디지털 복원

NHK의 뉴스 전자자료에서 히로히토의 "무조건 항복" 선언을 들었는데 콘도 도미에(92)는 AP통신 인터뷰에서 "극도로 어려운 말이었고" 회상했다.

일본 공내청이 종전 70년을 맞아 일왕 히로히토(裕仁·1901~1989)의 태평양전쟁 항복선언을 디지털로 복원해 공개했다. 2일 AP,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녹음물에 담긴 히로히토의 음성은 조금 더 뚜렷해졌으나 대중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히로히토는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라디오를 통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종전 반대론자들을 피해 하루 전인 14일에 NHK 기술자들을 궁에 몰래 불러 레코드판에 연설을 녹음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항복선언이 이뤄졌다.

히로히토는 그날 저녁 군복을 차려입고서 마이크에 대고 연설문을 두 차례 녹음했다. 히로히토가 어렵고 모호한 어휘를 쓴 데다가 음질이 좋지 않은 까닭에 대다수가 라디오로 전파된 항복선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

라고 관측이 일반적이다. NHK의 뉴스 전자자료에서 히로히토의 "무조건 항복" 선언을 들었는데 콘도 도미에(92)는 AP통신 인터뷰에서 "극도로 어려운 말이었고" 회상했다. 그는 "어떤 이들은 더 열심히 전청해야 한다는 말로 알아듣기도 했다"며 "어느 젊은이들이 항복 선언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히로히토의 항복연설 가운데 '건드릴 수 없는 것을 건디고 꺾을 수 없는 것을 꺾는다'는 문구는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와 잘 알려져 있다. 일본 공내청은 히로히토의 복원 음성과 함께 궁궐 내 방공호의 사진과 동영상도 공개했다. 히로히토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이 방공호에서 항복을 결심했다. 공내청은 "70주년을 맞아 전쟁범죄와 관련해 상징적인 주요 물품을 널리 알리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농협 비리' 수사 본격화... 최원병 회장 겨냥하나

리소리조트 특혜 대출 초점

검찰의 '농협 비리'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 통일로 농협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날 31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리소리조트 대출심사 서류 등을 확보했다. 농협 특혜대출 의혹의 중심에 있는 리소리조트 그룹(29일), 농협중앙회 산하 여러 건물의 설계·감리 등을 전담한 H건축사 사무소(30일) 등에 이어 서울 연석 강계수사를 벌이며 빨라지게 의혹의 핵심으로 진입하는 형국이다.

이번 수사는 농협중앙회 수뇌부, 그 가운데서도 최원병(69)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 회장은 2007년 임기

4년의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5년 후배로 전 정권 실세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여러 의혹 가운데 일단 리소리조트 그룹 특혜 대출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리소리조트는 2002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를 반복하며 최악의 재무건전성을 보였지만 농협은 10년간 매년 거액을 대출했다. 지금까지 리소리조트가 차입한 금액은 1649억원이지만 상환한 금액은 전체 대출액의 14%인 235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리소리조트 그룹 신상수(58) 회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 횡령한 돈이 대출 특혜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닌

지 의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센 농협의 특성상 로비가 있었다면 최 회장을 비롯한 농협 수뇌부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영향력 있는 장·관개 인사들이 대거 연루됐을 게 연성도 충분하다. H건축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농협과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비자금 건립을 보였지만 농협은 10년간 매년 거액을 대출했다. 지금까지 리소리조트가 차입한 금액은 1649억원이지만 상환한 금액은 전체 대출액의 14%인 235억원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구 특혜 대출 의혹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여러 혐의점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문화전당 수장 전격 교체... 개관 차질 우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한 달 앞두고 문화전당 개관업무에 도맡아온 수장이 전격 교체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자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로 방선규(56·사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

영부장을 임명했다. 김성일 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으로 옮겼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8회에 공직에 입문한 뒤 지난

2000년 국정홍보처 홍보조사과장을 거쳐 문화부 국민소통실장, 문화예술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 수장을 교체한 데 대해 개관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보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1일 산업융합지원부 장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한국연구원을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혁신기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지 혹은 유류 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II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분	내 용
지원자격	• 주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협회,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상별 합당사업 • 사업비는 현상별 지급
추진체계	• 기업주 컨소시엄(주관기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이 주관기관 단독으로 불가
신청기간	신청: 2015년 7월 15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신청: 2015년 7월 15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III 평가방법 및 선정

구분	사 업 내 용	평가항목 및 선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항목 및 선정
제 1회	제 1회 평가	제 1회 선정
제 2회	제 2회 평가	제 2회 선정
제 3회	제 3회 평가	제 3회 선정

IV 사업내용

- 본 사업은 실시계획서(연구개발사업)를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을 대상 사업임
- 수혜기관이 3년연속연구개발사업(중소기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지원금을 통해 지원
- 지원대상과 수행대상:
 - 제 1회: 2015. 7. 31일 ~ 8. 31일
 - 제 2회: 2015. 9. 1일 ~ 9. 30일
 - 제 3회: 2015. 10. 1일 ~ 10. 31일
- 평가항목: 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지원금을 통해 지원
- 기타: 2015년 7월 31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 신청: 2015년 7월 31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 평가: 2015년 9월 15일(토) 09:00 ~ 2015. 9. 30일 18:00 까지
- 선정: 2015년 10월 15일(토) 09:00 ~ 2015. 10. 30일 18:00 까지

V 신청요건

- 신청대상:
 - 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을 지원
 - 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을 지원
 - 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을 지원
- 신청기간: 2015년 7월 15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 신청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25, 2층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25, 2층)
- 신청방법:
 - 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을 지원
 - 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을 지원
 - 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을 지원

VI 문의처

- 문의처:
 - 산업융합지원부: 02-6009-3796
 - 산업융합지원부: 02-6009-3797
 - 산업융합지원부: 02-6009-3787
- 신청: 2015년 7월 31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 신청: 2015년 7월 31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 신청: 2015년 7월 31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VII 신청절차

- 신청: 2015년 7월 31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 신청: 2015년 7월 31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 신청: 2015년 7월 31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VIII 참고자료

- 신청: 2015년 7월 31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 신청: 2015년 7월 31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
- 신청: 2015년 7월 31일(토) 09:00 ~ 2015. 8. 31일 18:00 까지